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비 조각 : 가뭄거나 유연하거나



Contents

목차

010 창원조각비엔날레 소개

발간사

012 세계적인 조각의 도시 창원
창원시장 허성무

인사말

013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를 맞이하며
창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014 친근한 창원조각비엔날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제규

015 확장된 조각의 현장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황무현

서문

020 비조각 - 가법거나 유연하거나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김성호

1부 전시 프로그램

030 출품 작가
033 작품 배치도
042 본전시1_비조각으로부터
110 본전시2_비조각으로
122 - 프롤로그
144 - 프롤로그/에필로그
162 - Step1
196 - Step2
210 - Step3
260 - Step4
312 - Step5
334 - Step6
354 - Step7
376 특별전1_이승택, 한국의 비조각
408 특별전2_아시아 청년 미디어 조각
452 출품 작가 약력

2부 전시 외 프로그램

480 **아티스트 프로그램**
482 - 아티스트 워크숍
484 - 아티스트 토크
496 **강좌 프로그램**
497 **학술 컨퍼런스**
499 - 국내 학술 컨퍼런스 - 이승택, 한국의 비조각
511 - 국제 학술 컨퍼런스 - 비조각 담론과 현대 조각
528 **커뮤니티 프로그램**
542 - 키즈뮤지엄
546 - 청소년프로그램
548 - 걱정교환소
550 **전시 투어 프로그램**
550 - 비엔날레 나이트
551 - 비크닉
552 - 헬로비엔날레, 도슨트 프로그램
554 **온라인 프로그램**
556 - 온라인 전시
558 - 비평웹진 & 홍보 서포터즈
560 **2019 프레비엔날레**
562 - 전시 비조각의 프롤로그
566 - 강좌 한국 조각계의 거장들
568 - 컨퍼런스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미래적 방향

3부 부록

574 **포토 앨범**
604 **디자인**
610 **만든사람들**
612 **후원, 협찬**
613 **광고**
618 **발행 정보**

010 Introduction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Foreword

012 **Changwon, International city of Sculpture**
Sung-Moo HUH, Mayor, Changwon City

Greetings

013 **Greeting for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Chi-Woo LEE, Chairperson,
Changwon City Council

014 **Friendly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Je-Gyu KANG, President,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015 **Expanded Field of Sculpture**
Mu-Hyun HWANG, Chairperson,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Steering Committee

Preface

020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Part 1 Exhibition Program

030 **Participating Artists**
033 **Map of the Artwork Site**
042 **Main Exhibition 1_From Non-Sculpture**
110 **Main Exhibition 2_To Non-Sculpture**
122 - Prologue
144 - Prologue/Epilogue
162 - Step1
196 - Step2
210 - Step3
260 - Step4
312 - Step5
334 - Step6
254 - Step7
376 **Special Exhibition 1_**
Seung-Taek LEE, Non-Sculpture of Korea
408 **Special Exhibition 2_**
Young Asian Artist Media Sculpture
452 **Participating Artist's CV**

Part 2 Non-Exhibition Program

480 **Artist program**
482 - Artist workshop
484 - Artist talk
496 **Course program**
498 **Academic Conference**
499 - Academic Conferenc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Seung-Taek LEE,
Non-Sculpture of Korea
511 -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528 **Community program**
542 - Kid's Museum: 'Hello, Come & Join Us'
546 - Teen Program
548 - Trouble Exchange
550 **Exhibition Tour Program**
550 - Biennale Night
551 - Bi-cnic,
552 - Hello Biennale, Docent Tour
554 **Online Program**
556 - Online Exhibition
558 - Critical Webzine & Supporters
560 **Pre-Biennale 2019**
562 - Exhibition A Prologue to Non-Sculpture
566 - Course_Masters of Korean Sculpture
568 - Conference_The Future Direction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Part 3 Appendix

574 **Photo Album**
604 **Design**
610 **People who mad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612 **Sponsors**
613 **Advertising**
618 **Publication Information**

Changwon, International city of Sculpture

세계적인 조각의 도시, 창원

발간사 Foreword

우리 창원시는 세계적인 조각가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한국에 현대 추상 조각의 길을 연 거장 김종영(1915~1982) 조각가를 비롯하여, 자신만의 독창적 조형 세계를 개척한 문신(1923~1995) 조각가의 예술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곳입니다. 통합 창원시 10주년을 맞이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2020창원조각비엔날레가 열린다는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비엔날레 또한 10주년이 되는 주요한 분기점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성찰을 도모하는 주제인 '비조각 - 가볍거나 유연하거나'를 통해 10년의 세월을 반추하는 이번 행사가 비엔날레의 비전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대 최고의 참여 국가 수, 역대 최초 아프리카 대륙의 5개국 참여, 역대 최초 홍보대사 위촉, 역대 최대의 지역 작가 비율, 지역 협력 큐레이터의 발굴과 지원, 지역 공연단체와 지역 상권과의 출판작 협업 등 올해 비엔날레는 여러 가지 훌륭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내외 컨퍼런스와 아티스트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엔날레의 새로운 위상을 만들고자 힘쓴 김성호 총감독님과 황무현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추진팀의 구성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Changwon is home to a number of world's greatest sculptors including Chong-Yung Kim (1915-1982), father of Korea's modern abstract sculpture, and Shin Moon (1923-1995), a trailblazer who created his own artistic style. It is my joy to share with you the opening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as the city celebrates its 10-year anniversary of integration with neighboring cities: Masan and Jinhae. This year, the Biennale also marks its 10th anniversary,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its future. I hope that the Biennale serves as a venue to reflect on the past and set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with the contemplative theme of Non-Sculpture - Light or Flexible

In 2020, the Biennale boasts the largest number of participating countries, especially from Africa (5 African countries), and the largest number of regional sculptors. This year's Biennale will be the fruit of many endeavors such as appointing the first honorary ambassador, supporting regional curators, and collaborating with performance groups and commerce of Changwon. A host of engaging Academic Conference, Seung-Taek LEE, Non-Sculpture of Korea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artist workshops and Talks, and Community programs are open to visitors. Lastly, I would like to convey words of congratulations and appreciation to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Steering Committee Chairperson Mu-Hyun Hwang, and staff for pushing forward the Biennale in this time of hardship due to COVID-19.

창원시장 허성무

Sung-Moo HUH, Mayor of Changwon City

Greeting for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를 맞이하며

인사말 Greetings

한국 현대 조각 예술의 거장들인 김종영, 문신 선생의 고향인 창원시에서 세계적인 조각 예술 축제인 '2020창원조각비엔날레'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향의 도시 창원에서 김성호 총감독님의 기획으로 국내외 참여 조각가들의 멋진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비조각 - 가볍거나 유연하거나'라는 특별한 주제를 통해서 10주년을 맞이하는 5회 행사를 기념한다고 하니, 매우 의미 있는 비엔날레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반성을 거쳐 비엔날레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한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비엔날레가 창원시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창원 시민과 창원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황무현 추진위원장님과 추진팀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city of Changwon on hosting one of the world's renowned sculpture festivals,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that such festival is held in Changwon, home to Korea's legendary modern sculptors - Chong-Yung Kim and Shin Moon. It is a sheer delight to enjoy a collection of spectacular artworks by ingenious sculptors at home and abroad in this city of art, thanks to the brilliant curation of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of the Biennale.

It has been 10 years since we hosted the first Biennale in Changwon. This year, the city celebrates the 5th Biennale under the special theme of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I hope this year's Biennale will serve as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prepare for a better future through self-reflection and contemplation. I expect the Biennale will further promote the brand of the city and touch the hearts of many Changwon citizens and visitors from outside the area.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Mu-Hyun Hwang, Chairperson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Steering Committee, and his staff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in this time of difficulty.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

Chi-Woo LEE, Chairperson, Changwon City Council

Friendly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친근한 창원조각비엔날레

인사말 Greetings

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과 함께 창원문화재단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제규입니다.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처럼 1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자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김종영과 문신 선생님께서는 창원에서 나고 자라 조각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기신 우리 창원을 대표하는 예술가입니다. 저 또한 창원에서 나고 자라면서 김종영과 문신 선생님의 창작 혼과 그 숨결을 가슴에 담고 동경하며 예술에 대한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이 선구자들의 예술혼을 계승해 다양한 주제로 풀어내는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올해는 비조각이라는 얼핏 생소한 낱말이지만, 들여다보면 마치 일상의 영화를 보는 듯한 친근한 모습이기도 한 부분에 큰 공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가들의 손에서 태어난 작품들이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지듯 어우러지고 김성호 총감독의 조각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통해 국내 유일의 조각 비엔날레, 세계의 미술 현장에서 유의미한 비엔날레가 되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부디 많은 분이 함께 하여 2년을 기다려 온 이 축제를 한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I am Je-Gyu Kang, President of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culture and art lovers for showing a great interest in our foundation.

This year,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hosted by Changwon-si and organized by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marks its 10th anniversary as it welcomes the visitors to its fifth installment. In this meaningful year, the Biennale will offer the visitors a truly memorable and exciting experience.

As you know well, Changwon is a birthplace of Chong-Yung Kim and Shin Moon, the city's most respected sculptors who have helped shape Korean art. Personally, the creative and passionate mind of these two pioneers have encouraged me to explore the world of art, while I was growing up in Changwon.

Inspired by the passion of these pioneers, this year's Biennale is held with the theme of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which may seem a bit unfamiliar at a glance. However, if you take a closer look, you will feel as if the sculptures on display are films about everyday life.

Just like a film is directed by a director, the Biennale is orchestrated by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with a flexible interpretation on sculptures.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제규

Je-Gyu KANG, President,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Expanded field of Sculpture

확장된 조각의 현장

인사말 Greetings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존의 조각공원 조성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동시대 실험적인 조각 예술의 경향을 소개하고 관련한 담론을 활성화 시키는 미술제로 정초시키려고 합니다.

올해 비엔날레 주제는 '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하거나'로 확장된 조각의 현장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비조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전의 비엔날레의 특성을 잘 견인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10주년이 되도록 행사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김성호 총감독과 함께 조각을 특화한 국내 유일의 조각비엔날레라는 특성을 극대화하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선보이는 수준 높은 전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작품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즐기고 함께 호흡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연, 도시, 조각이 시민의 삶 속에 함께 어우러지고, 새로운 예술적 경험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서 도시, 예술,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비엔날레로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In celebration of its 10th anniversary,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seeks to transform itself into a fresh art festival introducing emerging trends of contemporary and experimental sculpture art and encouraging discussions on relevant topics,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concept of creating a sculpture park.

Under the theme of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this year's Biennale takes a deep dive into the expanded world of sculptures. Marking the 10th anniversary enables us to take a look back into the Biennale's history and build up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revious events through the concept of non-sculpture.

Together with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of the Biennale, the Steering Committee is dedicated to transforming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nto Korea's most popular artistic festival by bringing out its special features as the country's one and only sculpture biennale and presenting high-quality exhibitions reflecting the contemporary trends. Rather than being just another one-way event, the Biennale will offer a wide array of interactive programs for visitors to experience and enjoy.

At the Biennale, visitors will have a first-hand experience which brings together the nature, city, people and sculptures, and blurs the line between everyday life and art. See you at the Biennale and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interest.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황무현

Mu-Hyun HWANG, Chairperson,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Steering Committee



Non-Sculpture : Light or Flexible

비조각 -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서문 Preface

I. 주제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는 행사 주제로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를 제시합니다.

'조각'비엔날레에서 '비(非)조각'을 선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비조각은 이름처럼 '조각이 아닌 무엇'일 텐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조각이 시도하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자기와 다른 것들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여기에는 '조각이 아닌 사물, 자연, 에너지, 예술' 등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덩치가 크고 견고한 전통적 조각'의 속성 너머에서 가져온 '모든 조각'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주제에서 보듯이 '가볍거나 유연한 조각'을 포함한 '모든 조각'을 품는다는 것이죠.

비조각은 미술사에서 '탈경계의 조각' 혹은 '조각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던 '현대 조각'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비조각'의 숨은 의미는 '다양한 조각'과 같은 개념과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쉬운 말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아리송한 '비조각'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주제로 내세웠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비조각이라는 용어가 뿌리를 두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I. Theme "Non-Sculpture : Light or Flexible"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proposes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as this year's theme.

A "sculpture" Biennale to showcase "non-sculptures"? Yes, that is correct. Here, "non-sculpture" is quite self-explanatory: it means "something that is not a sculpture." If you take a closer look at this keyword, even though it is not so easy, you will see that this keyword is the outcome as well as the process of a sculpture's self-denial. Think about it. If one denies oneself, one comes to accept that things that used to be different from oneself are now the same as oneself. Here, the concept includes various objects, nature, energy, art, and many more that are "non-sculptural." In brief, the "non-sculpture" encompasses "all sculptures" of any form beyond the conventional "large-size, rigid, and solid" sculpture with which many of us are familiar. As hinted by the Biennale theme, this concept embraces "all sculptures" including those that are "light or flexible."

The "non-sculpture" is another way of describing the modern sculpture that has been defined as "sculpture at trans-boundary" or "expansion of sculpture" in the history of art. In final, the hidden meaning of non-sculpture is similar to something like a "diverse sculpture." There was a simpler word than "non-sculpture!" Why, then, the Biennale would make a conscious choice to use this rather perplexing and ambiguous word to describe this year's theme? To understand better, let us now explore the three following stories about the root of the keyword "non-sculp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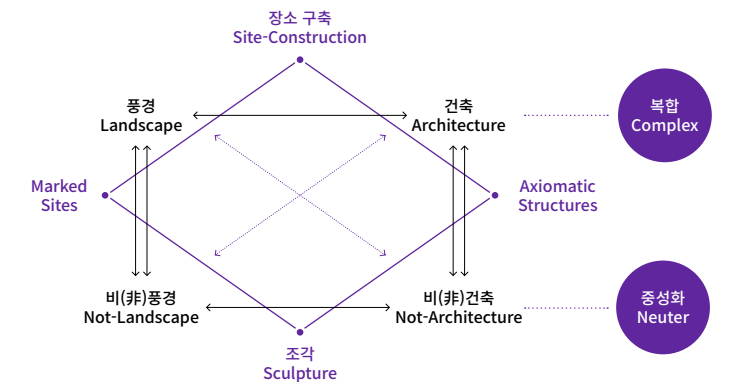
II. 주제어 '비조각'

이 비조각이라는 주제어는 다음과 같은 세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비조각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미술사가인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확장된 영역에서의 조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1979)이라는 논문에서 풍경과 건축이 조각과 만나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풍경(not-landscape), 비건축(not-architecture)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기호학적 방법론을 충감독이 변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즉 조각이 만나는 풍경과 건축을 부정하기보다 조각 스스로 '자기 부정'을 꾀하고 '자기 성찰'을 꾀해보자는 제안인 셈입니다. 여기 크라우스가 만든 아래의 도표를 한 번 살펴보실까요?

조각은 풍경과 건축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이질적인 것들을 잘 어울리게 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풍경과 건축을 부정(not)의 방법론을 통해서 조각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중성화(neuter) 전략입니다. 풍경, 건축으로부터 비풍경, 비건축이라는 '모순적 관계'를 만들어 중성화를 시도함으로써 조각과의 만남을 어렵지 않게 성취하는 것이죠.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는 이러한 방법론에 '조각' 스스로 '자기 모순을 통한 자기 부정'을 거쳐 '자기반성을 통한 자기 성찰'을 함유하는 '비조각'이 됨으로써 다른 것들과 비슷해지는 중성화를 시도합니다. 너에게 변화라고 권유하기 보다 내가 먼저 변해서 만남을 시도하는 착한 비엔날레인 셈입니다.

둘째로, 비조각이라는 용어는 한국 조각가 이승택(1932~)이 「내 비조각의 근원」(1980)이라는 에세이에서 서구의 근대 조각의 유산에 저항하면서 '조각을 향한 비조각적 실험'을 천명했던 '비조각'이라는 개념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승택은 1950년대 말~1960년대의 앵포르멜 회화와 1970년대의 단색화가 주도하는 한국의 주류 미술 현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펼쳤던 작가입니다. 그는 당시 전통적인 조각 재료보다 새끼줄, 밧줄, 어망, 헝겊, 천 조각, 머리털, 깃털, 돌맹이, 부표 등 각종 비조각적인 오브제 조각의 재료로 삼아 설치의 조형 언어로 '비조각적인 조각 실험'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셋째로, 비조각이라는 용어는 넓게는 동양과 한국의 '비(非)물질의 미학'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번 비엔날레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비물질은 사전적 정의로 "물질이 아닌 것"을 지칭합니다. 물리에서는 "에너지, 시간, 운동성 따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전혀 조각적인 재료가 아니지요. 서구의 20세기 미술에서 이러한 비물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60~1970년대의 개념 미술,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등이 그것이지요. 대개 물질적 요소를 비물질적인 재료로 대체해서 미술화하거나 물질을 거부하고 정신성을 지향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이러한 서구의 미술 흐름은 원래 오래된 동양적 사유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氣), 도(道)와 같은 무형의 에너지뿐 아니라 무(無), 공(空)과 같은 부재와 맞물린 존재론, 이(理), 화(和)와 같은 질서의 우주론은 비물질과 연동하는 주요한 동양 미학입니다.



크라우스(Rosalind Krauss), 「확장된 영역에서의 조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1979)

II. Keyword "Non-Sculpture"

The keyword "non-sculpture" was influenced by the following three lines of thought.

Firstly, the keyword "non-sculpture" is the Biennale Creative Director's appropriation of the semiotic square created by American art historian Rosalind Krauss in her landmark 1979 essay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to describe sculpture as an intersection of "not-landscape" and "not-architecture." In other words, it is a proposition for a sculpture to seek self-denial and self-reflection rather than denying the landscape or architecture that it encounters. Let us take a look at the diagram below that Krauss created.

A sculpture appears quite differently from landscape or architecture. What would bring those dissimilar things together so they assimilate with each other? This is where the neutering strategy is employed with a "not" methodology that denies landscape and architecture so they appear to be similar to a sculpture. By creating a "paradoxical relationship" among landscape and architecture which results in "not-landscape" and "not-architecture" after being neutered, landscape and architecture can harmonize with sculpture with more ease. Employing such methodology,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attempts to neuter sculptures to make them "non-sculptures" after "self-denial" and "self-contemplation via self-reflection" so they become assimilated with others around them. In this sense, the Biennale has truly a "good" intention to proactively change itself, rather than make others change, to come together harmoniously with others.

Secondly, the use of the keyword "non-sculpture" is an act of carrying on the non-sculptural experiments toward sculpture that were manifested by Korean sculptor Seung-taek Lee (born in 1932) in his 1980 essay "The Origin of My Non-Sculpture," in resistance to the legacy of Western modern sculpture. Lee developed his own distinctive style, distancing himself from the mainstream Korean art scene dominated by the Art Informel in the late 1950s to the 1960s and by monochrome paintings in the 1970s. Instead of using conventional sculpture materials, he made use of non-sculptural objects including straw-braided ropes, strings, fish nets, old fabric, cloth pieces, human hair, feathers, pebbles, and buoys in his formative language for these experiments.

Thirdly, "non-sculpture" is a celebration of the aesthetics of immateriality in the East and Korea, which is heavily highlighted in this year's Biennale. Dictionaries define "immateriality" as "something that is not a material." In physics, "immateriality" refers to things like "energy, time, or motility," which are not at all materials for a sculpture. The concept of immateriality was enthusiastically embraced by the Western art world in the 20th Century - namely, by the conceptual, video, and performance artists of the West in the 1960s and 1970s. A lot of contemporary Western artworks that replace material objects with immaterial ones or explore spirituality after denying materiality as a whole have their roots in the East. Intangible energy such as qi(氣) and tao(道), the ontological concepts of nothingness(無) and emptiness(空), as well as the cosmological notions of logic(理) and harmony(和), are all at the core of Eastern aesthetics that are linked with immateriality.

III. 주제 구성과 의미

자, 이제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어 비조각의 개념을 얼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제어 '가볍거나'와 '유연하거나'는 무엇일까요? '가볍거나'는 '비조각의 형식'을 의미하는 말로 마련되었습니다. 풀어 말하면 '기념비처럼 덩치가 큰 조각'이나 '딱딱하고 견고한 조각'과 같은 전통적 조각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조각적 형식을 아우르는 표현인 셈입니다. '유연하거나'는 비조각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조각, '완성을 향한 미완성'의 개념이 주요한 조각 등을 가리킵니다. 물론 두 주제어가 뚜렷하게 형식과 내용으로 변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의미가 겹쳐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용어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길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제,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는 통합 창원시 10년을 맞이하고, 비엔날레 태동 10주년을 맞이하는 5회 행사에 이르러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비조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자기 부정'과 '자기반성'을 도모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성찰해 봄으로써 10년을 지나는 시점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일보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니 이제 "가볍거나 유연한" 조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II. Composition and Meaning of Theme

Now, the concept of "non-sculpture" - the keyword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 is a lot clearer. Then, what does it exactly mean to be "light or flexible?" Being "light" refers to the "form" of non-sculptures. In other words, being "light" describes all sculptural forms beyond the conventional sculptures that are large in size like monuments or the traditional rigid and solid sculptures. Being "flexible" refers to the content of non-sculptures: those that are process-oriented, not result-oriented, and that employ the idea of being incomplete toward completion. For sure these two keywords are not always segregated by the binary of form or content. As their meanings sometimes overlap, they act as a basic guide for the general visitors to help their understanding. The summary is as below. In celebration of the 10 years since the Biennale's inception with this year's 5th installment as well a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host city Changwon's merger with neighboring cities, we are taking a moment to look back. We intend to practice self-denial and self-

주제어 Keyword	구성 Content	해설 Description
비조각 Non-Sculpture	주개념 Main Concept	조각의 자기반성과 자기 부정 / 중성화 전략 / 다원주의 조각의 성찰 Self-reflection and self-denial of sculpture / Neutering strategy / Reflection on the pluralistic sculpture
가볍거나 Light	보조개념1 Sub-Concept 1	비조각의 형식 / Anti 기념비처럼 덩치가 큰 조각 / Anti 딱딱하고 견고한 조각 Form of non-sculpture / Anti-large-size sculpture like monument / Anti-rigid-or-solid sculpture
유연하거나 Flexible	보조개념2 Sub-Concept 2	비조각의 내용 / 결과보다 과정 중심 / 완성을 향한 미완성 Content of non-sculpture / Focus on process rather than results / State of being in complete toward completion

reflection under the theme of "non-sculpture," contemplate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ultimately foresee where we will be in 10 years down the road. Having contemplated upon ourselves, rather than blaming others, our encounter with the "light or flexible" sculptures will come much easier.

IV. 프로그램 구성

올해는 본전시 1, 2, 특별전 1, 2와 같은 전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민 강좌, 아티스트 워크숍과 아티스트 토크, 국제 학술 컨퍼런스 및 국내 학술 컨퍼런스 그리고 체험이 가득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 가벼운 형식과 유연한 내용의 조각들을 둘러보시고 볼거리가 가득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IV. Programs

This year, the Biennale not only presents exhibitions such as the Main Exhibitions 1 & 2, Special Exhibitions 1 & 2, but also provides some thought-provoking programs including Public Course Program, Artist Workshop and Talks,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and Academic Conference as well as an array of exciting community programs. We encourage you to come join us to enter the world of sculptures with light forms and flexible content and to experience the richness of our programs. Welcome to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김성호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Main

To Non-Sculpture

비조각으로

(Seongsan Art Hall)

(성산아트홀)

Exhibition 2

To Non-Sculpture

비조각으로

Main Exhibition 2

본전시 2



NON-SCULPTURE
LIGHTS OF FLEURLE

창원문화재단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NON-SCULPTURE
LIGHTS OF FLEURLE



2020
경상남도
현대미술제
0.17-11.1
www.gangnamart.com

NON-SCULPTURE:
LIGHTS OF FLEXIBLE

비조각, 가변적
유연하다

NON-SCULPTURE:
LIGHTS OF FLEXIBLE

비조각, 가변적
유연하다

관세관
수리관

Main Exhibition 2

본전시2

전시명: 본전시2_비조각으로

전시 장소: 성산아트홀 1, 2층

참여 작가: 총 18개국, 58팀, 63인 (국내 42인, 해외 21인) 러시아, 핀란드, 미국, 모나코, 아제르바이잔, 쿠바, 중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집트, 아일랜드, 루마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한국

전시 내용

비엔날레 주제, ‘비조각 - 가볍거나 유연하거나’를 시각화하는 실내 주제전으로 다양한 양상의 설치미술과 해체적 조각, 미디어 조각, 관객 참여형 조각을 선보인다.

1. 경직된 기념비, 커다란 볼륨, 육중한 매스를 탈주하는 조각(‘가볍거나’-비조각의 형식)과 융복합의 콘텐츠를 담은 비물질의 조각(유연하거나-비조각의 내용)으로 구성
2. Step 1 ~ Step 7에 이르는 동선에 따른 ‘자연-환경-우주-인간-테크놀로지’로 이어지는 인간 문명의 거시적 내러티브와 ‘생로병사’의 미시적 내러티브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연출
3. 물, 불, 흙, 바람, 공기, 거품, 빛과 같은 자연적 질료 그리고 종이, 섬유, 비닐, 솜, 글리세린, 석고와 같은 유연한 재료를 끌어들이 비조각 개념을 성찰하게 만드는 조각. 또는 무겁고 둔중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용상으로 유연함과 연동되는 여러 주제를 탐구하는 조각
4. 파열과 해체 그리고 재구축이 어우러진 조각

공간 연출

본전시2는 본전시1과 달리 동선 계획을 면밀히 짜서 미리 준비한 내러티브로 관객을 인도하는 전시 구성이다.

성산아트홀 1층 중앙에는 넓은 홀(hall)이 있다. 이 홀은 1층부터 3층까지 바닥과 천장을 잇는 16미터가 넘는 높이를 지닌다. 모든 전시장이 이 홀을 원기둥처럼 싸고 있다는 점에서 중정(中庭)이라 부르는데, 이 중정은 본전시2의 관람을 시작하는 프롤로그이자 전시의 관람을 마치고 내려와 마무리하는 에필로그의 공간이기도 하다. 즉, 이 공간은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공간이다.

실제로 관객이 성산아트홀에 들어오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함께 만나는 커다란 중정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Step 1에서 Step 7에 이르는 전시장을 동선 배치에 따라 마련했다. 여기서 “관객은 ‘자연 - 환경 - 우주 - 인간 - 테크놀로지’로 이어지는 인간 문명의 거시적 내러티브와 ‘생로병사’의 미시적 내러티브로 구성된 전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경직된 기념비, 커다란 볼륨, 육중한 매스를 탈주하는 조각(가볍거나-비조각의 형식)과 융복합의 콘텐츠를 담은 비물질의 조각(유연하거나 - 비조각의 내용)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곳에서는 “물, 불, 흙, 바람, 공기, 거품, 빛과 같은 자연적 질료 그리고 종이, 섬유, 비닐, 솜, 글리세린, 석고와 같은 유연한 재료를 끌어들이 비조각 개념을 성찰하게 만드는 조각, 또는 무겁고 둔중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용상으로 유연함과 연동되는 여러 주제를 탐구하는 조각”도 살펴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 “파열과 해체 그리고 재구축이 어우러진 조각” 역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Exhibition Title: Main Exhibition 2_ To Non-Sculpture

Exhibition Venue: Seongsan Art Hall (1, 2F)

Participating Artist: 18 countries, 58 team, 63 artists (Korean 42, Overseas 21) Russia, Finland, US, Monaco, Azerbaijan, Cuba, China, Germany, Italy, France, Egypt, Ireland, Romania, Poland, Spain, Denmark, Sweden, Korea

Exhibition Description

This is an indoor themed exhibition that visualizes the main overall theme of the Biennale, "Non-Sculpture-Light or Flexible." It showcases various installation art, deconstructive sculptures, media sculptures, and sculptures that require audience participation.

1. Consists of a rigid monument, voluminous sculptures, and sculptures designed to leave heavy mass behind ("light" part form of the non-sculpture theme)
2. Exhibition venue features a string of macroscopic narratives involving "nature-environment-space-human-technology" of the human civilization, and more microscopic narratives of the "birth-old age-sickness-death" of humankind
3. Features sculptures made with materials that attract natural materials such as water, fire, soil, wind, air, foam, and light, and flexible materials such as paper, fiber, vinyl, cotton, glycerin, and plaster to reflect on the non-sculpture concept. Or sculptures made with heavy and ponderous materials that explore various concepts linked to flexibility
4. Features sculptures illustrating fragmentation, rupture, dismantling, and reconstruction

Spatial Arrangement

Unlike Main Exhibition 1, Main Exhibition 2 guides visitors along a carefully planned sequence to tell a certain narrative prepared by the Biennale in advance.

Seongsan Art Hall features an expansive hall near the center of its first floor. At 16m high, the hall spans from the first floor and all the way to the third floor. This central hall is called "Jungjeong" (central lobby), given how it serves as a lobby with other exhibition halls surrounding it. Function-wise, it serves as a prologue through which visitors can begin their journey through Main Exhibition 2, and an epilogue where visitors can round out their experience inside Seongsan Art Hall. In other words, Jungjeong serves as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tory Seongsan Art Hall hopes to tell as part of the Biennale.

Once visitors enter Seongsan Art Hall, they will find themselves in a sizeable lobby-like space that functions as a prologue and epilogue to Main Exhibition 2 at the Biennale. From there, visitors can follow along a predetermined route across the exhibition halls from step-1 to step-7. Here, visitors pass through exhibitions based on a macro-narrative of human civilization, which covers nature, the environment,

the universe, humanity, and technology, and exhibitions based on a micro-narrative of the life and death of human beings. Main Exhibition 2 features a "rigid monument, voluminous sculptures, and sculptures designed to leave heavy mass behind ("light" part of the non-sculpture theme) as well as non-material sculptures inspired by integrated content ("flexible" part of the non-sculpture theme)."

Of course, Main Exhibition 2 also includes "sculptures made with materials that attract natural materials such as water, fire, soil, wind, air, foam, and light, and flexible materials such as paper, fiber, vinyl, cotton, glycerin, and plaster to reflect on the non-sculpture concept, or sculptures made with heavy and ponderous materials that explore various concepts linked to flexibility." In some ways, Main Exhibition 2 offers the audience a chance to experience "sculptures illustrating fragmentation, rupture, dismantling, and reconstruction" as well.



STEP 4

스텝 4

Main Exhibition 2 본전시 2
To Non-Sculpture
비조각으로

1. 마크 게리 Mark GARRY 1972~, 아일랜드 Ireland
2. 카리나 스미글라-보빈스키 Karina SMIGLA-BOBINSKI 1967~, 독일 Germany
3. 김동숙 Dong-Suk KIM 1963~, 한국 Korea
4. 권순학 Soon-Hak KWON 1979~, 한국 Korea
5. 정택성 Take-Sung JEUNG 1975~, 한국 Korea
6. 김채린 Chae-Lin KIM 1983~, 한국 Korea
7. 세인트 머신 Saint Machine 1979~, 루마니아 Romania
8. 안카 레스니악 Anka LESNIAK 1978~, 폴란드 Poland
9. 박용식 Yong-Sik PARK 1971~, 한국 Korea
10. 김동현 Dong-Hyun KIM 1974~, 한국 Korea
11. 지고르 바라야자라 Zigor BARAYAZARRA 1976~, 스페인 Spain
12. 임창주 Chang-Ju YIM 1963~, 한국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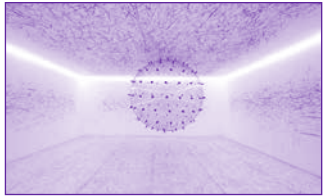
*실내 전시 Indoor Exhibition

Karina SMIGLA-BOBINSKI (1967~)

카리나 스미글라 보빈스키

Germany 독일

Main Exhibition 2 - Step 4 // 본전시 2 - 스텝 4



Born in Stettin, Poland
Lives and works in Munich,
Germany

폴란드 슈체친 출생
현, 독일 뮌헨 거주 및 활동

에이디에이

‘에이디에이’는 미학적이고 복잡하며 예술을 창조해내는 대형 인터랙티브 기구이다. 헬륨가스로 가득 찬 이 기구는 공간을 자유롭게 부유한다. 세포를 닮은 구체의 표면에는 목탄이 꽂혀 있어 벽면과 천장, 바닥과 맞닿을 때마다 흔적을 남긴다. ‘에이디에이’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흔적을 남기지만 관람객이 굴려 주어야 한다. 하지만 관람객이 조정하거나 길들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에이디에이’는 강도, 표현, 형태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선과 점의 구성을 만들어 낸다.

ADA

‘ADA’ is much larger, esthetical much complexer, an interactive art-making machine. Filled up with helium, floating freely in a room, a transparent, membrane-like globe, spiked with charcoals that leave marks on the walls, ceilings and floors. Marks which ‘ADA’ produces quite autonomously, although moved by a visitor. The globe obtains aura of liveliness and its black coal traces, the appearance of being a drawing. The globe put in action, fabricate a composition of lines and points, which remains incalculable in their intensity, expression, form however hard the visitor tries to control ‘ADA’, to drive her, to domesticate her.



·에이디에이, 2020, PVC 풍선, 목탄, 헬륨, 지름 300cm
·ADA, 2020, PVC balloon, Charcoals, Helium, Diameter 300cm

© KARINA SMIGLA-BOBINSKI "ADA - analog interactive installation by Karina Smigla-Bobinski"

독일 작가 카리나 스미글라 보빈스키
(Karina SMIGLA-BOBINSKI)의
《에이디에이(ADA)》(2020)

이 작품은 커다란 하얀 박스 안에서 약 3미터가 되는 공을 굴리는 관객 참여형 공간을 구축합니다. 내부에 헬륨을 채워 가볍게 떠다니게 만든 커다란 투명 공의 겉면에는 많은 수의 목탄이 달려 있습니다. 이 공이 거대한 박스 안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얀 천장과 벽 그리고 바닥에 ‘목탄의 검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공이 자유롭게 움직인 궤적이자 관객이 참여해서 만든 드로잉입니다. 이 ‘비조각적 조각’에서 작품은 작가의 창작에 의해서 완성된 채 전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그리고 관객의 참여와 함께 완성되어 갑니다. 따라서 관객은 더 이상 작품의 감상자만이 아니라, 작품의 공동 창작자인 것이죠. 관객은 하얀 박스가 점차 검게 변하게 되는 과정에 동참하면서 놀이와 예술의 같고 다른을 생각합니다.

《ADA》(2020) by Karina
SMIGLA-BOBINSKI from
Germany

This about 3m tall ball is an interactive drawing tool. Filled up with helium and covered with charcoal spikes, it floats freely in a huge white room, leaving black marks whenever it makes contact with walls, ceiling, and floor. These marks are traces of ADA's free-floating trajectory as well as the result of a visitor's participation. This non-sculptural sculpture is not complete without the passage of time and interaction with visitors. Visitors are no longer simple spectators, but co-creators of art. As they actively take part in the process of turning the room into grey with charcoal marks, they contemplate on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play and art.



© KARINA SMIGLA-BOBINSKI "ADA - analog interactive installation by Karina Smigla-Bobinski"



© KARINA SMIGLA-BOBINSKI "ADA - analog interactive installation by Karina Smigla-Bobinski"

